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⑲ 팔정도(八正道)

진리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까지 아울러

올해 초 동국대학교 팔정도 광장에서 '팔정도 동판 제막식'이 있었다.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이란 글자가 학교 메인 광장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모습에 여러 상념이 든다.

학생들이야 별생각 없이 밟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선방의 문고리만 잡아도, 문지방만 밟아도 그 공덕이 크다 하지 않는가. 〈법화경〉 방편품에도 "탑 안에서 나무불(南無佛)을 읊조린 까닭에 반드시 붓다가 되리"라고 쓰여 있다. 동국대 입학만으로도 알 수 없는 전생으로부터 부처님 법과 인연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팔정도를 시각적으로도 심상에 새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 인연으로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부처님과 인연이 닿으리라 감히 생각해 본다.

지금까지 동국대를 산책하며 우리는 가파른 언덕길만을 올라왔다. 이때의 시선은 위쪽이라는 한 방향으로 향했으나, 지금은 정각원을 지나 학교 정상인 팔정도 광장에 도착했다. 이 광장은 여덟 방향으로 넓게 펼쳐져 '팔정도(八正道)'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그 이름에 걸맞게 동국대에서 처음으로 시야가 탁 트인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 장소기도 하다. 이곳에 이르러, 시각의 일방향성이 해소되고 인식의 지평이 시원히 열리게 됐다. 이 자유로운 인식 속에서 산책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고자 한다.

팔정도의 첫걸음은 정견, 곧 '바른 인식'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해의 여지를 품고 있다. 흔히 '바르다'는 말에는 도덕적 옳음이나 상식적 분별이 겹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는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규범 정도로 이해시킬 수도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도덕의 선악이나 사회적 판단 기준과 같은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존재를 관통하는 진실에 대한 앎, 즉 출세간적 앎이다. 그리고 이 앎은 단지 지적 이해나 이론적 수용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가능해지는 인식이다.

이 점에서 정견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면서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초기불교나 아비달마에서는 이를 세간적인 일과 출세간적인 일로 나눠 설명한다. 전자는 인과의 법칙에 대한 확신, 즉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윤리적 통찰이다. 이는 반드시 불교의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반면 후자는 사성제에 대한 직접적 통찰로, 고(苦)의 성립과 그것을 멸할 길에 대한 실천적 앎이다. 이는 오직 붓다만이 제시하신 길이다. 하지만 두 정견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세간의 언어와 논리는 출세간의 지혜를 담기 어렵기에 이 같은 전환에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요구된다. 바로 믿음이다. 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불교를 이성의 종교라고만 알면 이는 50점도 안 되는 이해이다. 그 불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필요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동국대 팔정도 광장 중앙에 설치된 팔정도 동판.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견은 불교 수행과 믿음의 출발점
바른 인식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 要
구원, 붓다 가르침 실천 과정서 보여

불교 인명학의 종장인 법칭(法稱)의 인식론은 정견을 위한 믿음의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인명학은 논리학으로 불교학 분야에서도 가장 이성적 사용을 강조하는 학파다. 이 이성적 학파의 거두인 법칭은 인식의 바름을 보증하는 수단, 즉 '프라마나(pramāṇa)'에 대해 "붓다의 가르침만이(혹은 붓다 그분 자체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바른 인식의 근거"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붓다는 모든 무명을 여의고 실상, 정확하게는 사성제를 바르게 관찰하신 분이시므로, 붓다의 언설은 오류 없는 인식, 곧 바른 기준일 수밖에 없다.

법칭에 따르면, 붓다라는 프라마나에 귀의하지 않으면 정견을 얻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즉,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칭이 붓다를 프라마나라고 설정한 이유다. 불교도에게 구원이란 "참말을 하는 자이며 실 있는 말을 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자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眞語者 實語者 如語者 不狂語者 不異語者]"이시고, '일체지자(一切智者)'이신 붓다의 언설을 믿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이뤄진다.

물론 붓다께서는 자신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으셨다. 어디까지나 청자 스스로가 자신의 입장에서 붓다의 말을 음미하고 믿을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리셨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시작하는 정견은 단지 '무엇이 진리인가'를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불자 스스로의 마음가짐(붓다에 대한 절대적 믿음)까지를 아우르는 말이다.

이처럼 정견은 이해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믿음은 바른 인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자 조건이다. 불교가 인식의 종교라고 할 때 그 출발점에 믿음이 놓여 있다는 것은 불교가 오직 이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 없는 정견은 형식만 갖춘 껍데기에 불과하며, 삶을 바꾸는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사실 그런 정견은 없는 것이다. 깨닫기만 하면, 바르게만 보면 우리가 붓다와 같아질 수 있다는 자만한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성이라 해봤자, 흔들리고 번민하여 기준점이 될 수 없는 반딧불이의 불과 같을 뿐이다.

반면 붓다는 항상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서 북극성의 빛과 같다. 법칭이 말한 프라마나로서의 붓다란 바로 이 북극성이다. 그 빛을 따라가면 고해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자, 바른 인식을 가리키는 유일한 기준이다. 수평선 너머에 안식처가 있을지는 빛에 대한 믿음만이 보증할 뿐이다.

믿음은 언제나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작동한다. 모든 것이 논리와 경험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논리와 경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기나긴 윤회의 밤을 지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인식은 본래 한계가 있고 모든 존재는 변화하며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와 같은 세상에서 정견을 갖는다는 것은, 변화와 조건 너머에 도달한 자를 지남(指南)으로 삼아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결심과 다르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동국대 박사〉

나찰조차 부처님 인연 존중하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㊳ 걸람바총나찰인연(羯籃婆塚羅剎因緣)

⑤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선남자야, 과거에 '반차라(般遮羅)'라는 나라에 승군(勝軍)이란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때 나라에는 '걸람바(귀신들의 거처)'라는 무덤 구덩이가 있었는데, 매우 무서운 야차와 나찰들이 안에 살고 있었으므로, 누구나 거기 들어가는 이는 놀라서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때 나라 안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이 있었다.

왕은 전옥(典獄)에게 명하여, 죄인의 몸 다섯 군데를 묶어 '걸람바' 구덩이로 보내 악귀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다. 죄인은 이 말을 듣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찾다가 우연히 한 조각의 천을 얻어 목에 매었다. 전옥은 왕의 명령대로 죄인의 다섯 군데를 묶어 구덩이로 들여보내고 돌아왔다. 밤이 되어 '도검안(刀劍眼)'이란 큰 나찰 어미는 5천 권속을 데리고 구덩이로 들어왔다. 죄인은 그것을 보고 몸과 마음을 몹시 떨었다.

그때 나찰 어미는 다섯 군데를 묶이고 머리를 깎고 붉은 가사 조각을 목에 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곧 오른쪽으로 돌고 존중히 예배하면서 합장 공경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리. 나는 결코 해치지 않으리. 머리 깎고 가사를 걸친 당신을 보매, 불현듯 부처님이 생각나네.' 그러자 나찰의 아들은 어미에게 말했다. '어머니, 나는 주리고 목말라, 몸과 마음이 핍박을 받고 있소. 원컨대 저 사람을 잡아먹게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하소서.' 나찰 어미는 곧 아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항하의 모래 수같이 수많은 부처님의 해탈 당기의 가사를 입었으니, 저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리.' 그러자 나찰의 아들은 그 권속들과 함께 이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며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며 말했다. '가사 입은 이에게 참회하나니, 나는 차라리 내 부모에게 몸과 말과 뜻의 악업을 지을지언정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으리라.'

그때 다시 '려라치'라는 큰 나찰 어미가 있었는데, 그도 5천 권속에게 둘러싸여 무덤 구덩이로 들어왔다. 그도 죄인이 묶인 채로 머리를 깎고 가사를 목에 맨 것을 보고, 곧 오른쪽으로 돌며 예배하며 말했다. '당신은 두려워 마라. 당신 목에 매인 가사는 부처님의 당기 모양의 옷이기에 나는 예배하고 공양하네.' 그러자 나찰 아들은 어미에게 말했다. '사람의 피와 살은 맛이 있나니, 원컨대 어머니는 내가 먹게 하여 몸과 마음의 힘을 증진해 용맹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오.' 나찰 어미는 말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사람에게 나는 지금 공경하고 예배하나니, 원컨대 오는 세상에서 항상 부처님 뵈옵고, 깊은 신심 내어지이다.'

그때 또 '쟁녕발'이라는 큰 나찰 어미가 있었는데, 그도 5천의 권속을 데리고 무덤 구덩이로 들어왔다. 그도 죄인이 다섯 군데로 묶인 채, 머리를 깎고 붉은 가사 조각을 목에 맨 것을 보고는, 곧 오른쪽으로 돌고 예배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말했다. '부처님 당기 모양의 가사를 지혜로운 사람은 받들어 찬탄하라. 누구나 (그에게) 공양하면 필히 온갖 생존의 결박을 끊으리.'

그때 나찰 아들은 그 어미에게 말했다. '이 사람 몸의 피와 살은 이 나라 왕이 주신 것이네. 원컨대 먹고 마시게 하여 힘을 얻어 어머니를 섬기게 하소서.' 나찰 어미는 아들에게 말했다. '가사를 입은 이런 사람은 네가 취할 것이 아니니라. 그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 반드시 큰 고통의 그릇이 되리라.' 나찰의 아들은 여러 권속과 같이 이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며, 합장 공경하며 말했다. '당신은 바로 부처님의 종자로서 좋은 복밭이 되기에 넉넉하네. 그러므로 나는 공양하나니, 원컨대 모든 생존의 결박을 끊게 하소서.'

그때 또 '도검구'라는 나찰의 어미가 있었는데, 그도 5천의 권속과 함께 무덤 구덩이로 들어와 … 위와 같이 죄인을 돌고 존중하며 게송으로 말했다. '우리들은 지옥을 두려워하나니, 당신의 목숨을 해치지 않으리. 마땅히 결박을 풀어 주리니,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지이다.' 그리하여 나찰의 권속들은 자비심을 일으켜, 이 사람을 풀어 주고 위로하며 돌려보냈다. 이때 전옥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승군 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희유한 일이라고 하며, 곧 법령을 만들어 전국에 반포했다. '지금부터 이 나라에 사는 부처님 제자로서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혹시 아주 계율이 없더라도, 다만 머리를 깎고 가사만 입었어도 그를 능욕하거나 해치지를 못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마땅히 죽을 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로써 백성들은 모두 왕의 덕을 사모해 그를 남섬부주의 왕으로 삼았고 성심으로 삼보에 귀경했느니라.

선남자야, 과거의 나찰들은 … 머리를 깎고 가사 조각을 걸친 것만을 보고서도 공경 찬탄하며 조금도 해칠 마음이 없었느니라. 그런데도 미래 세상의 포악한 왕과 재관·바라문 등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것이 저 야차나 나찰보다 더하며, … 나의 제자들에 대해 공경하지 않고 곤장을 때리고 고문하며 감옥에 가두고 그 목숨을 끊는다. 이것은 삼세의 부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선근을 불태우는 것이며, 지혜로운 이의 모든 배척을 받을 뿐 아니라, 결단코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송림사 주지〉

염불 하실 때 법당의

기존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양손에 마이크를 잡고
(헤드셋 마이크 포함) 마이크 소리 비교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난감 수준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때 귀 법당 시설의 1/3 가격에 본사 시설을 선택하시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최신디지털앰프 : 비구니 스님도 앰프다루기 1초 / 고장없음 소리비교 비용 한잔!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별도 : 야외방생용 판매)
충전식 / 출력 3kw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가능
야외사용 겸용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원(願) 성취를 위한 8차
금강경 독송 21일
21독 정진대법회
정법도량 해남사에서는 3·7일간 금강경 정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하루에 21회 금강경을 독송하는 원(願) 성취를 위한 정진기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소의경전이자 모든 불자의 신심의 근본인 경전입니다.
금강경 독송기도는 자신의 진정한 신심과 원력을 일깨우는 정진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願) 성취의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
입재 : 2025년 10월 22일
회향 : 2025년 11월 12일
기도시간
오전 8시 ~ 낮 12시
오후 2시 ~ 오후 4시
저녁 7시 ~ 저녁 9시
문 의
☎ 해남사 종무소
052) 211-3340
010-7450-3340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말사
행복도량 해 남 사